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The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Therapists' Job Stress and Burnout

김희정*, 박민정*, 변혜진*, 신은자*, 정여주**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미술치료전공*,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Hee-Jeong Kim(pel2020@naver.com)*, Min-Jung Park(jung--sky@hanmail.net)*,

Hye-Jin Byun(jinart0@hanmail.net)*, Une-Ja Shin(shinuj88@hanmail.net)*,

Yeo-Ju Chung(chung4558@cha.ac.kr)**

요약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소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인,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 관계와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233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환경적 요인(학력, 경력, 치료시간, 시간 당 소득, 슈퍼비전 횟수) 중 경력만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간의 관계는 자아탄력성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이 이를 매개하며, 이러한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 **중심어** : | 미술치료사 | 직무스트레스 | 소진(Burnout) | 자아탄력성 | 사회적 지지 | 조절된 매개효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job stress,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burnout of art therapists.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and the effect by setting a research model with job stress as independent variable, ego-resilience as mediator variable, social support as control variable, and burnout as dependent variable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do this study, 3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rt therapists and the 233 questionnaires were used finally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nly career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personal environmental factors (education, career, treatment time, income per hour, number of supervis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was partially mediated by ego-resilience. Third, social support showed a regul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nd burnout. Thus, ego-resilience showed a mediation effect in the path that job stress affects burnout, and this mediation effect varies with the level of social support. So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was confirmed.

■ **keyword** : | Art Therapist | Job Stress | Burnout | Ego-resilience | Social Support | Moderated Mediation Effect |

I. 서론

현대인의 삶 특히 직장생활은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소와 동기를 부여해 주고 삶과 직무에 만족을 주어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1]. 이에 반해 처음에는 피로감과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인 어려움을 일으켜 직업적 위기나 자기 파괴적 행동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다다르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2].

현대인의 정신건강 등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미술치료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국내 미술치료가 소개된 이후, 2013년도 29개의 석사학위 과정과 대학원 38여개, 학부 11개가 개설 및 운영되고 있다[3]. 미술치료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전자도서관의 웹(web),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한국교육학술정보(RISS), 한국학술정보원(KISS), 교보문고 스킨라의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미술치료', '미술치료 현황', '미술치료사'를 검색해 보면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로는, 석·박사 학위논문, 단행본, 공개강의 형태의 연구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 420건의 문헌이 검색되고 있다[4]. 미술치료사들의 근무기관을 살펴보면 미술치료연구소, 상담센터,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기관, 의료시설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미술치료의 서비스 대상자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대학생과 성인층, 청소년, 유아, 중 장년층 이어서 노인 순으로 다양했다. 이러한 미술치료의 양적 성장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술치료는 미술치료이론과 심리학 이론, 인간발달사, 정신건강의학 등 다양한 지식을 다룬다[5]. 또한 미술치료사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과정 안에서 상담자-내담자 관계능력도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6]. 하지만 미술치료사는 낮은 고용기회, 경력 차등에 따른 보상의 어려움, 전문성 발달을 위한 지속적인 교

육의 필요성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미술치료사는 이러한 직무환경에서 비롯된 직무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소은[7]은 학력, 경력, 슈퍼비전 횟수, 소득, 치료시간이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최진아[8]는 치료사의 경력에 따라 직무몰입이 높아지고 치료시간과 소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장은경[9]은 경력조건에 비해 근무환경과 소득이 취약하여 치료사의 이직률이 높다고 하였다.

미술치료사의 소진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미술치료사의 전문적 특성, 자아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소진의 관계[10],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와 소진의 관계[11], 정서지능, 자기표현과 소진의 관계[12], 직무스트레스 소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13] 등이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미술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미술치료사의 소진에 관한 다각적 접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미술치료사의 소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서적 소모감과 무기력이라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 정리와 연구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14]. 특히 Orkibi는 미술치료사가 전문 직업으로 자리매김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한국의 경우에 소진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15].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소진은 미술치료사의 개인 환경적 요인(학력, 경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둘째, 미술치료사의 개별적인 요인 중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셋째,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가 다른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1.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구-자원 모델(Job Demands- Resources Model: JD-R Model)에서는 직무요구가 너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불안·우울·직무소진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16]. Sweeney, Nichols, and Kline은 치료사가 내담자와의 대면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동료나 상사 등의 대인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다[17]. 미술치료사는 치료 과정 안에서 장시간 책임감과 이타심을 가지고 타인을 돌보는 역할로 인해 개인적 요인 또는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최명선, 김봉환[18]은 미술치료사가 불안한 고용형태, 경제적 빈곤 등 외적 스트레스와 정체성 혼란과 역할 모호 및 역할갈등으로 인한 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소은[7]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문성 신장요인과 경제성 요인, 근무환경 요인 및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제공과 급여, 근무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소진(Burnout)

소진은 Freudenberger가 치료사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의욕을 잃고 환자들에게 냉정해지는 것을 보고 이러한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탈진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소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19]. 이후 Maslach과 Jackson이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개발하면서 소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20]. 1990년에는 소진의 증상과 특성을 확립하는 연구에 이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제로 개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과의 관계성 연구가 이루어졌다[21]. Pines과 Keinan의 연구에서 소진이 남을 돕는 직업군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다양한 직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 직무와 관련한 소진의 연구로 확장되었다[22].

미술치료사의 소진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미술치료사의 전문적 특성,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소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10],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소진이 낮았다는 연구[11], 정서지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표현이 부분 매개한다는 연구[12],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연구[13] 등이 있다.

3. 자아탄력성

2000년대 긍정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스트레스와 소진의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각과 극복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접근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동일한 위험 상황에서도 어떤 치료사들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치료사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잃지 않으며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치료사들도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심리학적 개념이 자아탄력성이다[23]. 자아탄력성은 결함이나 약점을 없애기 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고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소진의 보호요인중 하나인 개인적인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24]. 자아탄력성은 치료사가 객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치료적 상황을 판단하고, 치료사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여 환경에 적응이 쉽고 대인관계가 원활하며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25]. 또한 융통성 있게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하며[26], 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정서적 평형을 유지한다[27].

4. 사회적 지지

1970년대부터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심리학(preventive psychology)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지지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 이후, 소진에 대한 개념이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두면서 근무자(Worker)의 복지에 대한 영역으로까지 그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슈퍼바이저, 동료, 가족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소진이 감소되고[28], 기관장 및 동료와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소진을 더 적게 경험하며[29],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낮아지므로 직장 내 지

지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 등이 있다[30].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타인과의 교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31],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소진을 완충해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시사되어 왔으나[32] 미술치료사의 소진에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으로 국내에서는 연구된 바가 별로 없다. 그러나 타 직종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33], 조직몰입[34], 우울[35], 강인성[36]과의 상관에서 유의미하게 나온바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가 미술치료사 소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은 미술치료사가 아닌 타 직종의 연구결과들이거나 미술치료사 중에서도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술치료사들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치료사의 개인 환경적 특성과 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미술치료사의 개인 환경적 요인(학력, 경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 횟수)은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미술치료사의 자아탄력성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사이에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가설3. 미술치료사의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과 소진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1년 이상의 미술치료 임상 경력을 가진 미술치료사에 한하여 편의 표집 하였고, IRB심사를 통과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국으로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등을 통해 배부 및 회수하였다. 설문은 300부를 배부하여 284

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34명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제거하였다. 연구대상에 맞게 전문학사학위취득자 1명, 학사학위취득자 8명, 시간당 소득이 불분명한 8명을 이차적으로 제거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총 233명이다. 학력과 경력은 [표 1]과 같으며, 석사과정과 석사학위취득자의 경우는 7년 미만의 경력을 갖는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고, 박사과정 및 박사학위취득자의 과반수가 7년 이상의 경력을 갖는다.

표 1. 연구대상

	학 력			전체		
	석사과정	석사학위취득	박사과정 및 박사학위취득			
경 력	3년 미만	명	35	35	6	76
		%	46.1%	46.1%	7.9%	100.0%
	3년 이상 ~7년 미만	명	18	39	22	79
		%	22.8%	49.4%	27.8%	100.0%
	7년 이상	명	3	34	41	78
		%	3.8%	43.6%	52.6%	100.0%
전 체	명	56	108	69	233	
	%	24.0%	46.4%	29.6%	100.0%	

2. 연구도구

각 척도별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척도 설명 및 신뢰도

변인 (총 문항수)	측정 변수 (문항수)	출처	신뢰도
직무 스트레스 (28)	직무관련 요인(13), 근무환경 요인(4), 전문성 신장 요인(3), 경제적 요인(4), 대인관계 요인(4)	강다연 (2011)	.866
소진 (22)	정서적 소모(9), 내담자에 대한 비인간화(5), 개인적 성취감 감소(8)	김나영 · 정현희 (2012)	.919
자아탄력성 (29)	자신감(9), 대인관계효율성(8), 낙관적 태도(10), 분노조절(2)	김나영 · 정현희 (2012)	.907
사회적 지지 (16)	슈퍼바이저지지(6), 동료지지(6), 가족지지(4)	손혜진 (2010)	.903

2.1 직무스트레스 척도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Clark(1980)이 개발하고 D'Arienvo 등(1981)이 수정한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질문지를 권기태(1990)가 번안하고 강다연(2011)이 수정 보완한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의 하위영역은 직무관련, 근무환경, 전문성 신장, 경제적, 대인관계로 구성되어있다. 보기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α는 .866으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소진 척도

소진에 관한 질문지는 Maslach과 Jackson(1981)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박성호(2001)가 번안하고, 김나영, 정현희(2012)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소모, 내담자에 대한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서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α는 .919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로 나타났다.

2.3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에 관한 질문지 Block(1961)에 의해 고안된 척도를 Klohnen(1996)이 수정한 척도를 박현진(1996)이 번안하고 김나영, 정현희(2012)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서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α는 .907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4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Caplan, Cobb, French, Harrison 그리고 Pinneau(1980)가 개발한 질문지를 박성호(2001)가 번안하고 손혜진(2010)이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슈퍼바이저의 지지, 동료의 지지, 가족의 지지로 나뉘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보기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α는 .903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자아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된 매개모형을 회귀식으로 표현하면 수식 (1), (2)과 같다[37].

$$M = \alpha_M + aX + \epsilon_M \quad (1)$$

$$Y = \alpha_Y + c'X + b_1M + b_2W + b_3MW + \epsilon_Y \quad (2)$$

조절된 매개모형은 첫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가설이 채택되는지를 검증하고 둘째, 단순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조건이 만족되는지를 검증하고 셋째,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가설이 채택되는지를 검증하는 세 단계 분석 절차를 거친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조절변수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본 분석을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21과 SAS v9.4이며,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이 제시한 SPSS Macro를 사용하였다[38].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이 때, 학력, 경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 횟수는 통제변인으로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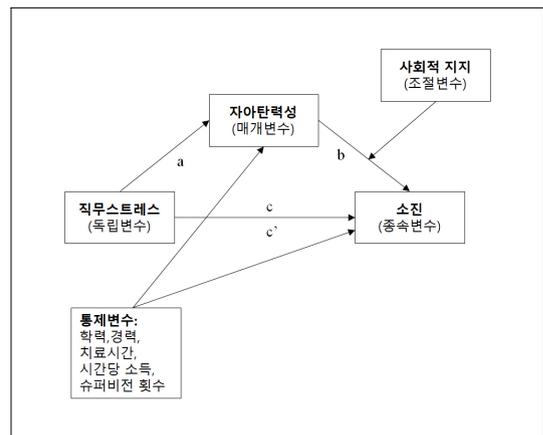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표 3. 변인 간 상관계수

	학력	경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	직무 스트레스	소진	자아 탄력성	사회적 지지
1	1,000								
2	.475**	1,000							
3	.131*	.280**	1,000						
4	.289**	.376**	-.056	1,000					
5	.303**	.424**	.237**	.214**	1,000				
6	-.094	-.182**	.00	-.166*	-.227**	1,000			
7	-.077	-.146*	.049	-.127	-.094	.537**	1,000		
8	.088	.100	-.084	.035	.113	-.436**	-.579**	1,000	
9	.076	-.001	-.114	.133*	.063	-.367**	-.418**	.436**	1,000

** : p<.01

IV. 연구결과

1.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직무스트레스, 소진,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는 모두 유의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때,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역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관계수는 모두 .3 이상으로 높은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4.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직무 스트레스	1.43	4.25	2.75	.46	-.01	.25
소진	1.23	5.09	2.62	.80	.76	.24
자아 탄력성	1.93	4.62	3.55	.44	-.61	.90
사회적 지지	1.94	4.94	3.97	.50	-.69	1.09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은 2.75로 보통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고, 소진은 평균이 2.62로 이는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번 이하 정도의 소진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각각 3.55와 3.97로 보통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은 2를 넘지 않으므로 모두 정규성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2. 개인 환경적 요인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차이 검증

본 연구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미술치료사의 개인 환경적 요인 중 응답자의 경력이나 업무 상황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소진, 자아탄력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응답자 중 117명(50.2%)는 일주일에 10시간 이하의 치료 시간을 갖고, 115명(49.4%)은 10시간 초과의 치료 시간을 갖고, 98명(42.1%)은 10회 미만의 슈퍼비전을 받았으며, 135명(57.9%)은 10회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당 3만원 미만의 치료비를 받는 미술치료사는 110명(47.8%), 3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받는 미술치료사는 120명(52.2%)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학력, 경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의 횟수에 따른 각 주요 변인의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와 같이 직무스트레스는 경력이 짧을수록 본인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시간당 소득이 3만원 미만인 집단과 3만원 이상인 집단의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으며, 슈퍼비전의 횟수가 10회 미만인 집단과 10회 이상인 집단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이 각각 2.88점과 2.6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개인 환경적 요인에 따른 주요 변인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주요 변인	구분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F
직무스트레스	학력	석사과정	56	2.81	.36	1.03
		석사학위취득	108	2.76	.48	
		박사과정 및 박사학위취득	69	2.69	.49	
	경력	3년 미만	76	2.89	.37	5.51**
		7년 미만	79	2.71	.42	
		7년 이상	78	2.67	.54	
	치료 시간	1~10 시간	117	2.75	.44	.01
		11시간 이상	115	2.75	.48	
	수당	30,000원 미만	110	2.84	.42	2.54*
		30,000원 이상	120	2.68	.48	
슈퍼비전	10회 미만	98	2.88	.43	3.54***	
	10회 이상	135	2.66	.46		
소진	학력	석사과정	56	2.68	.85	.93
		석사학위취득	108	2.67	.78	
		박사과정 및 박사학위취득	69	2.51	.80	
	경력	3년 미만	76	2.88	.85	6.13**
		7년 미만	79	2.47	.70	
		7년 이상	78	2.53	.80	
	치료 시간	1~10 시간	117	2.59	.74	-7.75
		11시간 이상	115	2.67	.87	
	수당	30,000원 미만	110	2.74	.80	-1.93
		30,000원 이상	120	2.53	.80	
슈퍼비전	10회 미만	98	2.71	.86	1.43	
	10회 이상	135	2.56	.75		
자아탄력성	학력	석사과정	56	3.54	.42	2.12
		석사학위취득	108	3.50	.47	
		박사과정 및 박사학위취득	69	3.64	.41	
	경력	3년 미만	76	3.48	.49	1.45
		7년 미만	79	3.57	.37	
		7년 이상	78	3.60	.46	
	치료 시간	1~10 시간	117	3.59	.44	1.27
		11시간 이상	115	3.51	.45	
	수당	30,000원 미만	110	3.53	.42	-5.53
		30,000원 이상	120	3.56	.47	
슈퍼비전	10회 미만	98	3.49	.49	-1.73	
	10회 이상	135	3.59	.40		
사회적 지지	학력	석사과정	56	3.90	.38	.82
		석사학위취득	108	3.99	.51	
		박사과정 및 박사학위취득	69	4.01	.57	
	경력	3년 미만	76	3.99	.45	.24
		7년 미만	79	3.94	.48	
		7년 이상	78	3.98	.57	
	치료 시간	1~10 시간	117	4.03	.49	1.74
		11시간 이상	115	3.92	.50	
	수당	30,000원 미만	110	3.90	.45	-2.03*
		30,000원 이상	120	4.03	.53	
슈퍼비전	10회 미만	98	3.94	.48	-.96*	
	10회 이상	135	4.00	.51		

*p<.05, **p<.01, ***p<.001

소진은 학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 횟수의 정도에 따라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경력에 따라 집단 간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진의 집단별 평균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집단은 2.88점, 3년 이상 7년 미만의 집단은 2.47점, 7년 이상의 집단은 2.53으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집단의 소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 환경적 요인에 따라 평균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회적 지지는 시간당 소득과 슈퍼비전 횟수에 따라 평균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간당 소득 3만원 미만인 집단과 3만원 이상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평균 차이는 약 .13으로 시간당 소득이 높은 집단이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았으며, 슈퍼비전 횟수가 10회 이상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 평균이 10회 미만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 평균보다 약 .06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 구조 모형 분석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앞선 연구 결과를 통해 자아탄력성은 각 개인 환경적 요인에 따른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 고려된 통제변수는 자아탄력성은 통제하지 않고 소진만을 통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통제변수는 F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력만을 사용하였다. 수정된 연구 모형은 [그림 2]과 같다. 그림에서 a는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의미하고, b는 자아탄력성과 소진의 관계를 의미한다. c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총 효과를 의미하며, c'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간접효과를 제외한 직접효과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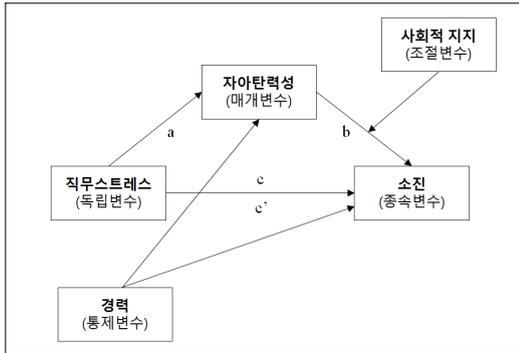


그림 2. 수정된 연구 모형

3.1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단계로,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우선, 세 변인에 대한 단순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전제조건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3단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39],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관계(a)는 -.436으로 신뢰수준 95% 하에서 유의하였고, 자아탄력성과 소진의 관계(b)는 -.562로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경로 b와 경로 c에 해당되는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424, .332로 모두 신뢰수준 9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Hayes의 방법을 사용하여[37] 붓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추정치는 .320, 붓스트랩 신뢰한계는 (.204, .445)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수준 9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소진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B	s.e.	β	t	p
a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421	.057	-.436	-7.361	.000
b 자아탄력성 →소진	-1.016	.096	-.562	-10.598	.000
b 와 c 직무스트레스 →소진	-.766	.099	-.424	-7.761	.000
	.579	.097	.332	5.974	.000

3.2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대한 조절효과는 없다고 가정하고, 자아탄력성과 소진 간의 관계만을 조절한다고 가정하였다.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적 지지와 직무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의 표준화계수는 -.614, 유의확률은 .072로 신뢰수준 9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소진에 대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검증

	B	s.e.	β	t	p
절편	-.445	1.758		-.253	.801
직무스트레스	1.735	.574	.994	3.023	.003
사회적 지지	.331	.435	.206	.760	.448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263	.145	-.614	-1.811	.072

반면,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과 소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가설이 채택되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즉, 소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검증 결과, 상호작용항의 표준화계수는 1.481, 유의확률은 .015로 신뢰수준 9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8. 소진에 대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검증

	B	s.e.	β	t	p
절편	12,619	2,227		5,667	.000
사회적 지지	-1,715	.559	-1,069	-3,067	.002
자아탄력성	-2,454	.665	-1,358	-3,689	.000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404	.164	1.481	2,460	.015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아탄력성과 소진 간 관계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세 그룹(평균 이상, 평균, 평균 이하)으로 범주화하여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3]과 같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모든 사회적 지지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 집단의 기울기가 다름을 통해 두 변인에 대한 부적 관계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다면 자아탄력성이 낮아도 소진이 보다 약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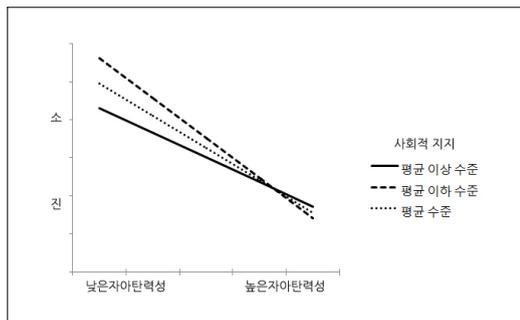


그림 3.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3.3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위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소진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효과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붓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 붓스트랩 방법은 표본이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뢰구간 추정을 통해 변수의 조건부간접효과를 검증한다[37]. 붓스트랩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사회적 지지는 5점만점 척도로서 평균에 대하여 $\pm 1SD$ 를 기준으로 평균 이하

수준(M-1SD), 평균 수준(M), 평균 이상 수준(M+1SD)으로 나뉘질 수 있었으며, 각 수준에 대한 간접효과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간접효과는 줄어들음을 알 수 있고 모든 추정치들은 붓스트랩 신뢰한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매개하는 영향력은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줄어든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9. 조건부간접효과의 붓스트랩 검증 결과

사회적 지지 수준	간접 효과	Boot s.e.	하한	상한
평균 이하 수준	0,333	0,073	0,196	0,481
평균 수준	0,284	0,058	0,177	0,411
평균 이상 수준	0,239	0,057	0,136	0,360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들의 소진에 중점을 두고, 직무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소진과의 관계 중 특히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어 사회적 지지가 이들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환경적 요인을 살펴본 결과, 미술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은 학력, 치료시간, 시간당 소득, 슈퍼비전 횟수의 정도에 따라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경력에 따라 집단 간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진의 집단별 평균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집단이 3년 이상의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7년 이상의 경력 집단은 오히려 3년 이상 7년 미만의 집단 평균보다 다소 소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진과 경력이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니라 10년을 기점으로 하는 말굽형 형태의 곡선형 관계라고 한 이자영 외의 연

구[40], 학교상담자나 음악치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력에 따라 소진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41][42]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다른 직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도 교직경력이 11년 이상이 10년 이하일 때보다 소진 수준이 높았던 연구[43]나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10년 이하보다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소진이 높은 결과를 보여 준 연구[44] 등이 있다. 반면 특수학급교사, 사회복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력이 쌓일수록 소진이 덜 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결과들[45][46]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 경력과 소진의 관계는 연구 대상 직업의 특수성이나 다양성에 기인한 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47].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소진의 보호요인이라고 보고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이[48-50]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높은 탄력성과 긍정적 태도를 가진 아동상담자는 소진을 덜 경험한다고 주장한 연구나[51],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중등교사의 성격과 소진 및 교사갈등과 소진의 관계에서도 매개하였음을 보여준 연구[52], 자아탄력성이 청소년 상담사의 소진의 전체와 하위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53]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아탄력성과 소진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과 소진을 조절하는 효과와 함께, 자아탄력성이 소진에 미치는 매개효과 역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높다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개인이라든가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으로 연결되는 강도가 적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요구(job demands)와 직무자원(job resources), 탈진(exhaustion) 및 이탈(disengagement)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직무요구-자원 모델(Job Demands-Resources Model:

JD-R Model)로 설명될 수 있다[54]. 직무 요구란, 직무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지속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때 개인은 직무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 보호 수행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략의 사용이 바로 직무자원이다. 직무자원은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하여 열의를 높이고, 과업성과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성장과 학습 및 개발을 촉진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지만, 만성적인 직무요구나 자원의 부족은 결국 소진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미술치료사가 치료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치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에 비해 제반환경이나 낮은 처우 및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으로 인한 소진을 겪게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Meijman & Mulder은 노력-회복 모델(the effort-recovery model)을 통해 외재적 동기의 강화를 주장했다[55]. 즉, 동료의 지원과 상사로부터의 적절한 피드백은 업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보상의 증가 등 우호적인 개인적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증대시켜서, 일에 대한 동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진의 영향으로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아진 미술치료사에게도 정서적 공감과 유대를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동료, 슈퍼바이저의 지지 등의 외재적 동기 강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소진의 보호자원인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가 조절역할을 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소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미술치료사에게 정서적, 육체적, 영적 복지를 지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56].

본 연구는 미술치료사에 대한 소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의 상황에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미술치료사일수록 직무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 환경적 요인에

서 소진극복에 대한 대처양식을 조사하였는데, 학술활동 및 워크숍 참여, 슈퍼비전 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미술치료사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이 시사된다. 하지만 열악한 여건에서는 미술치료사의 개개인의 각별한 의지와 노력으로 경력을 쌓아나가면서 점차 유능감을 느끼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술치료사들이 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전문성 발달을 이루어나가는 대신 발달정체에 머무르거나 소진에 빠지게 된다면 이는 치료사 개인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미술치료사 전문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본다.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술치료사들을 위해 발달 촉진적 환경을 제공하고 발달 저해적 요소를 감소시켜나갈 수 있는 기관차원에서의 슈퍼비전 지원이나 보수교육의 제공 등의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위한 실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미술치료사들이 소진 극복 전략으로 선택한 것은 자기작업이었다. 최희아는 자기 돌봄에 대해 온전히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휴식의 기회이며, 타인을 돌보는 객관화의 과정이라고 하였다[57]. 따라서 예술작업이 수반된 자기 돌봄은 미술치료사의 삶의 활력, 무의식 성찰,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전문적 향상과 함께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58]. 이는 미술 치료사들이 개인적인 예술을 창조할 때의 이점을 강조한 연구들[59][60]과 소진의 예방과 회복을 위해 명상이나 분석, 지지적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46][61]. 소진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시회의 필요성이나[62], 미술관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 연구도 있다[63].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자기작업 및 전시회 참여 등 미술치료사의 예술적 활동은 미술치료사의 소진을 낮추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예술치료 전공 학생이나 전문가들이 개인적인 예술작업을 훈련에서 배제하거나[64], 전시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는 연구결과[63]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미술치료사의 예술작업을 통한 사회적 활

동은 예술가이자 치료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을 공유하는 친사회적인 경험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킴으로써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통로로서의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self-report)를 통한 자료 수집이어서 대상자의 지각을 반영하고 있기에 변수들의 민감성에 따른 축소 보고 및 편향의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지지 설문에서 직무환경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각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와 개인 간 차이를 볼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통해 소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직무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봄으로써 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장세진,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제17권, 제4호, pp.297-317, 2005.
- [2] J. E. Barnett, E. K. Baker, N. S. Elman, and G. R. Schoener, “In pursuit of wellness: The self-care imperativ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Vol.38, No.6, pp.603-612, 2007.
- [3] <http://www.pqi.or.kr/imf/qul/infQulist.do>
- [4] 이성희, 최외선, 김영숙, “한국미술치료사의 현황과 전망,” 미술치료연구, 제124권, 제1호, pp.43-69, 2017.
- [5]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2판)*, 학지사, 2014.
- [6] M. McMurray and S. M. Ofrah, “Transference In Art Therapy: A New Outlook,”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25, No.1, pp.31-36, 1998.
- [7] 이소은,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예술치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8] 최진아, 김정애, “미술치료 전공자의 직업의식과

- 직무만족도 조사 연구,” 미술치료연구, 제22권, 제5호, pp.1269-1288, 2015.
- [9] 장은경, “서울 지역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의 미술치료 현황과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8호, pp.350-359, 2009.
- [10] J. H. Gam, G. S. Kim, and Y. S. Jeon, “Influences of art therapist: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burnout,”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47, pp.1-8, 2016.
- [11] 김나영, 정현희, “미술치료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제19권, 제4호, pp.879-899, 2012.
- [12] 이아련, *미술치료사 정서기능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표현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학위사논문, 2016.
- [13] 정현희, “미술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 *임상미술심리연구*, 제7권, 제1호, pp.1-17, 2017.
- [14] 윤은주, *상담자의 소진(burnout)에 대한 체험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15] H. Orkibi, “Highly artistic-social personalities buffer the effects of burnout on career commitment,”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50, pp.75-83, 2016.
- [16] W. B. Schaufeli and A. B. Bakker,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 sampl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25, No.3, pp.293-315, 2004.
- [17] G. M. Sweeny, K. A. Nicholls, and P. Kline, “Factors contributing to work-related stress in occupational therapists ; results from a pilot study,” *The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54, No.8, pp.284-288, 1991.
- [18] 최명선, 김봉환, “실천가로서 미술치료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접근,” *예술심리치료연구*, 제10권, 제4호, pp.169-192, 2014.
- [19] H. J. Freudenberger,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30, No.1, pp.159-165, 1974.
- [20] C. Maslach and S. E. Jackson,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U.S.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pp.1-218, 1981.
- [21] 장미화, 유금란, “업무환경 위험요소가 상담과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32권, 제3호, pp.755-775, 2013.
- [22] A. M. Pines and G. Keinan, “Stress and Burnout: The significant differ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9, No.3, pp.625-635, 2005.
- [23] K. Reivich and A. Shatte, *The Resilience Factors*, 우문식·윤상운 옮김, 절대회복력, 경기 : 물푸레, 2011.
- [24]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신체상, 부모와 또래에 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5호, pp.123-132, 2005.
- [25] 윤현희, *부모보고형의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26] 정혜옥, 이옥형, “초임 유아교사와 경력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pp.31-54, 2011.
- [27] 이민정, *초등교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8] 박성호, *상담의 직무환경에서의 위험요소와 사회적 지지가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29] 이정희, 조성연,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시설장, 동료교사와 가족의 사회적지지,” *아동학회지*, 제32권, 제1호, pp.157-172, 2011.
- [30] 장경은, 김혜원, 최유리,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이 소진 증후군에 미치는 조절된 매개모델,” *한국아동학회*

- 지, 제38권, 제4호, pp.19-31, 2017.
- [31] S. Cohen and H. 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No.2, pp.99-125, 1983.
- [32] 권재환, 박희현, "아동상담자의 자존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3권, 제3호, pp.39-53, 2010.
- [33] 김인경, "음악치료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제14권, 제1호, pp.41-61, 2012.
- [34] 이재영,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조직몰입: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0권, 제3호, pp.59-67, 2012.
- [35] 김희영, 정봉교,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제32권, 제4호, pp.183-204, 2016.
- [36] 박미경, "응급실 간호사의 강인성, 사회적 지지 및 소진간의 관계," *한국융합학회지*, 제8권, 제10회, pp.397-405, 2017.
- [37] A. F. Hayes,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An Open Access and Academic Publisher*,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38]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2nd ed), Guilford press: New York. 2018.
- [39]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40] 이자영 외, "상담경력과 상담자소진과의 관계: 한국과 미국상담자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0권, 제1호, pp.23-42, 2008.
- [41]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42] 강아림, "음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제13권, 제1호, pp.45-65, 2011.
- [43] 이영만, "초등학교 여교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제25권, 제1호, pp.191-214, 2012.
- [44] 김승재, 엄기매, 서호찬, "물리치료사의 자아탄력성,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관계," *대한건강과학학회지*, 제12권, 제1호, pp.17-33, 2015.
- [45] 구효진, 오인지, 임화성, "유아특수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pp.205-231, 2017.
- [46] 김남숙, 남희은, 진혜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소진위험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소진탄력성의 매개효과," *비판사회정책*, 제11권, 제45호, pp.98-124, 2014.
- [47] S. Cohen and T. A. Wills,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98, No.2, pp.310-357, 1985.
- [48] 김현미, 최인화, 권현용, "청소년 상담자의 직무환경, 자아탄력성, 상담자활동자기효능감이 상담자소진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제15권, 제2호, pp.1-30, 2010.
- [49] 정지연, 박영희, "보육교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정서적 지지의 구조적 관계," *사고개발*, 제12권, 제1호, pp.11-132, 2016.
- [50] S. Howard and B. Johnson, "Resilient Teachers: Resisting Stress and Burnout,"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Vol.7, pp.399-420, 2004.

[51] 여선영, *아동상담자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Burn Out)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52] 김영숙 외, “중등교사의 성격, 교사갈등,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1권, 제2호, pp.373-394, 2016.

[53] 박희현, 오숙경, “청소년상담자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6권, 제2호, pp.153-169, 2013.

[54] E. Demerouti, A. B. Bakker, F. Nachreiner, and W. B. Schaufeli, “The Job Demands - Resource Model of Burnou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6, No.3, pp.499-512, 2001.

[55] T. F. Meijman and G. Mulder, Psychological aspects of workload, In P. J. D. Drenth, H. Thierry, & C. J. de Wolff (Eds.), *Handbook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nd ed.)*. *Handbook of work and organizational: Work psychology* (pp.5-33), Hove, England: Psychology Press/Erlbaum (UK) Taylor & Francis, 1998.

[56] A. S. Mark, *Empathy Fatigue: healing the mind, body and spirit of professional counselors*, 이달엽 옮김, *감정이입 피로 증후군*, 학지사, 2010.

[57] 최희아, *심리치료사의 소진과 자기 돌봄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58] 홍혜정, *미술치료사의 미술작업을 통한 자기돌봄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59] C. Brown, “The importance of making art for the creative arts therapists: An artistic inquiry,”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35, pp.201-208, 2008.

[60] Y. A. Iliya, “The purpose and importance of personal creativity for creative arts therapists: A brief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pplied*

Arts & Health, Vol.5, No.1, pp.109-115, 2014.

[61] 윤아랑, 조하나, “청소년 상담자의 업무환경 및 개인내적 요인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제52권, 제2호, pp.193-224, 2013.

[62] J. Jue, “The extent of engagement in art making and exhibition by art therapy practitioners and student,” *The Art in Psychotherapy*, Vol.55, pp.32-39, 2017.

[63] 김은진, *소진을 보고하는 미술치료사의 미술관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64] H. Orkibi, “Students’ artistic experience before and during graduate training,”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39, pp.428-435, 2012.

저 자 소 개

김 희 정(Hee-Jeong Kim)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미술치료전공 박사과정

<관심분야> : 미술치료

박 민 정(Min-Jung Park)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미술치료전공 박사과정

<관심분야> : 미술치료

변 혜 진(Hye-Jin Byun)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차의과학
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
미술치료전공 박사과정

<관심분야> : 미술치료

신 은 자(Une-Ja Shin)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차의과학
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임상
미술치료전공 박사과정

<관심분야> : 미술치료

정 여 주(Yeo-Ju Chung)

정회원



▪ 2016년 3월 ~ 현재 : 차의과학
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대학원장

<관심분야> : 미술치료, 재활심리, 미술치료교육, 영
성치료